

‘네 탓 국회’...사상 초유 추경 무산 가능성

더민주, 증인 채택 고수...새누리 “강경세력이 망쳐” 국민의당 일괄타결 중재안...정부, 본예산 포함 부정적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지난 22일 조세입 구조조정 청문회에 원하는 증인이 채택돼야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자, 새누리당이 이에 난색을 보이면서 파국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여야 3당은 23일까지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했다.

새누리당은 ‘선(先)추경-후(後)청문회’의 여야 합의 의사를 내세우고 있고 더민주 측은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흥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청문회에 나와야 추경안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강경

하게 맞서고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오늘 오전 수석부대표 비공개 회동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통해 26일 본회의를 소집,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당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민주에서) 완전히 친노 강경세력들에 의해 합의가 원천 파기됐다. 이런 식이 앞으로 계속 될 거 아니냐”며 “이러고도 수권을 꿈꾸느냐”며 강도높게 비판했

다.

이에 맞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게 공을 넘기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정현 대표에게 부탁을 드리겠다. 이분이 친박(親박근혜) 중 친박, 실세 중 실세가 아니겠느냐”며 “추경 청문회에 가깝게 지내던 친박 인사 중 한 명이라도 (청문회에) 나오게 설득하실 때 집권당 대표로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정상화시키고 증인채택 협상을 이어가자는 중재안을 다시 제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고 증인채택 협상도 계속하면서 마지막 순간 일괄타결하면 된다”며 “예결위도 진행

정기라운지

안철수 “양극단이 권력 잡으면 국민 불행”

27~28일 광주 방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3일 “더 이상 양극단 중 한쪽이 권력을 잡는다면 또다시 절반의 국민만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끄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보좌진협의회 출범식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양극단을 제외한 합리적 개혁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빠져있고 그 핵심에는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이 끊임없이



‘리브풀’을 보내는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만날 계획에 대한 질문에 “적당한 때에 한 번 더 언락드 리고 만남의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개혁에 대해서는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데 앞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할지에 대해 말씀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지지율 하락 현상에 대한 질문에는 “열심히 현상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 전 대표는 오는 27~28일 1박 2일간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는 데 이어 30일에는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고성 오간 국민의당 박지원·황주홍 설전

국민의당 진로를 놓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 의원들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23일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는 당내 핵심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주류인 황주홍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황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 하락세 등을 거론하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외부 후보 영입 등 당 진로에 대한 공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당내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상 박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쓴 소리’를 던졌다.



국민의당 의원총회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왼쪽)와 황주홍 의원(오른쪽)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 위원장과 황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당 진로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해프닝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에 온갖 격투에 지쳐있는 박 위원장이 폭발했다. 박 위원장은 “언제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도 안 하면서 그러느냐”고 황 의원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위원장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내부에 분란을 일으키고 총질하느냐”고 쏘아붙였다.

황 의원에 지지 않고 “선배님의 낮은 정치 때문에 당이 이렇게 됐다”며 “원랜쇼 그만하라”고 일갈했다.

이번 충돌로 국민의당 내부 사정이 밖으로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충돌 과정에서 일부 초선 의원들은 황 의원을 향해 “후배들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 이제 그만하라”고 만류하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황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방법이 문제”라며 “대여투쟁 국면에서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 당력을 결집하고 한 발짝씩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도 당권 강화...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

대의원·권리당원 없애고 전 당원 투표권...대선을 30일까지 마련

국민의당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동시에 선출하되 대표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대선 경선 룰은 오는 30일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의원 및 권리당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 당원이 1표씩 행사해 주요 당직을 선출하고, 기초선거 공천권은 시·도당에 위임할 방침이다.

국민의당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는 23일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선거방식으로 선출하고 최다 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는 안을 확정짓고 이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

고했다. 특히 이번에 선출된 당 대표는 당세 확장과 대선 승리를 위해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일원이지만 그 권한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라고 할 수 있다.

지도부는 당 대표를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6명에서 당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2명,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최고위원 2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위원회는 기존 정당에서 선거인단 역할을 해 온 대의원 및 권리당원을 폐지하고

일반당원을 포함한 모든 당원이 1표씩을 행사하는 전(全) 당원 투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또 기초 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 후보자 공천 방식을 시·도당에서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식적인 승인을 거치는 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중앙당은 공천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의 공천권만 갖게 된다.

국민의당은 지역조직 강화를 위해 일반당비와 직책당비를 해당 당원이 소속된 시·도당으로 모두 배분하고, 수권비전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 종합적인 정책의제와 발굴 및 선전 등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

천정배 “호남 주도 정권교체...지역 주자 있어야”

전남도의회 기자 간담회

천정배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서구 을)은 23일 “내년에 호남 주도의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호남 출신 대선주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내년에 정권교체 가능성이 있다”며 “호남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정권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영남 패권주의와 독점, 독식에 기반한 수구반정세력을 극복해야 한다”며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호남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호남 주도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국민의당에 호남 출신 중진의원들이 다 모여 있다”며 “호남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로서 협력해야 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대장정을 호남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호남을 대변할 정권교체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호남 출신 중진의원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천 의원은 “정치권 새판짜기”에 대해 “정권교체를 위한 것이라면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새판짜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최경환, 아파트 부가 수익 부가세 면제법 발의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 을)은 23일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세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부가세 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폐지, 현우, 페플라스틱과 같은 재활용품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시켰다.

아파트 거주비율이 50%에 가까운 현실을 감안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



품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9.1%의 부과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비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게 최 의원의 판단이다.

최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